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우리 낙농육우협회와 자조금 운영위원회에서는 더 많은 효과와 한국낙농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다. (원유 1kg당 1원씩 2000년 1월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낙농인이 20억, 정부에서 10억, 총30억원의 예산을 세웠다.

우리 낙농인들은 1회에 한하여 동참하지 말고 연중 지속적으로 동참해 우리 낙농 산업이 농촌의 영원한 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자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체 낙농인들 중 20%의 무임 승차

자가 있었으며 유업체들이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유값은 인하하지 않고 우유값만 인하했다는 이유로 동참을 하지 않았는데 2000년부터는 유업체도 꼭 동참해야 하며 무임 승차자도 없어야 하겠다. 유업체가 살아야 낙농가가 살고 낙농가가 살아야 유업체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낙농인들의 생각이다.

지난해와 같은 IMF여건 속에 우리 낙농가는 절규와 절망이었는데도 많은 유업체는 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경영을 잘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

끝으로 자조금사업의 텔레비전 방송 광고가 우리 주변에 잔잔한 감동을 주어 '99년 방송 광고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또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광고와 자조금사업의 성공을 위해 애를 많이 써주신 LG에드사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낙농육우협회가 있고 자조금 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 된다면 한국의 낙농산업은 영원히 발전되리라 생각하며 낙농가 각 가정에 행운과 번영이 함께 하길 바란다. ☺

(필자연락처 : 0417-564-1549)

## 남보다 내가 먼저 앞장 선다는 생각으로



박 순 식

낙농자조금운영위원(전북)

낙농자조금 조성과 자조금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타 유업체나 이웃 낙농가들의 불참이 없어야 자신도 동참하겠다고 하고, 또한 자조금을 내면 그 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신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낙농가는 푹푹 멍쳐서 유업체가 부도로 유대마저도 밀린 상태에서도 자조금 조성에 앞장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낙**농자조금이란 낙농 불황타개를 위해 낙농가 스스로 소비촉진 활동에 동참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낙농자조금은 우유의 질이 하루가 다르게 향상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 우유가 선진국에 못지 않은 우수한 우유임을 소비자에

게 전달함으로써, 우리나라 우유가 외국제품보다도 오히려 뒤지지 않음을 소비자들이 인식하게 하여 우유소비를 확산시키고, 우

리의 낙농산업을 한차원 높게 끌어올리려는데 그 뜻이 있겠다 하겠다.

우리 낙농가가 앞으로 다가올 2001년 축산물 개방을 앞두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절감하고, 뛰어난 생산기술로 외국 축산농가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시유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낙농자조금을 통한 우유 소비 홍보에 주력함으로써, 국내 원유시장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시유소비를 늘리는 것이 우리 낙농가의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 유가공업체들은 회사 나름대로 시유시장보다는 이윤이 많은 가공유나 다른 유제품 소비에만 신경을 쓸 뿐, 시유광고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낙농자조금 조성활동의 초창기에는 '우리 낙농가들은 신선하고 깨끗한 우유만 생산하면 되는데 왜 소비홍보에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하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98년 IMF영향으로 일부 유업체가 부도가 나고, 우리 낙농가는 원유대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된 불황속에서 생산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정부는 원유소비가 되지 않으므로 원유가 인하를 거론했고, 유업체는 유업체대로 회사사정 때문에 유대를 제대로 주지 않고 분유 등의 현물지급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힘든 우리 낙농가를 더 힘들게 채찍질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우리 낙농가는 낙농자조금을 통해 우유 소비를 늘렸으며, 저능력우 도태 등에 앞장섬으로써 정부의 원유대 인하 압력을 저지시켰으며, 유업체 또한 소비량의 촉진으로 원유 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우리 낙농가는 이제 대우받고 원유를 납유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낙농가는 깨끗하고 신선한 양질의 우유를 생산하는데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낙농자조금 조성과 자조금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타 유업체나 이웃 낙농가들의 불참이 없어야 자신도 동참하겠다고 하고, 또한 자조금을 내면 그 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신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낙농가는 푹푹 뭉쳐서 유업체가 부도로 유대마저도 밀린 상태에서도 자조금 조성에 앞장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남보다는 내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낙농자조금 조성에 앞장 선 낙농가 여러분, 이런 낙농가 여러분이 있는 한 우리 낙농가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6월 30일부터 낙농가들 스스로 원유 kg당 5원씩 3개월간 낙농자조금을 조성하여 국산 시유홍보에 나서기로 결의하고 본격적인 낙농 자조금조성에 들어갔다. '98년도 IMF 경제 한파로

우유소비부진에 따른 사상최대의 분유재고 적체 현상이 야기되었고, 사료값 인상과 소값폭락, 여기에 유대마저 제때에 받지 못하는 우리 낙농가로서는 낙농자조금은 또 하나의 부담이었다.

그러나 우리 낙농가는 낙농업 사상 최대의 어려운 시기에도 낙농자조금 조성에 서로가 동참하여 정부 지원금 포함 25억원이 넘는 자조금을 조성하는 쾌거를 맞보았다. 조성된 자조금은 TV 광고, 라디오 광고, 신문광고 등에 쓰였으며, 공익캠페인으로 사랑의 우유나누기 운동을 전개하여 모든 국민이 동참하는 큰 결과가 있었다. 사랑의 우유 나누기 운동은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큰 호응을 얻어 우유소비에도 큰 힘이 되었고, 축산인은 물론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속에 우리 낙농가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계속되는 낙농자조금 조성에도 낙농가의 단합된 힘을 보여 낙농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 낙농자조금 실시 원년을 보내며 그동안 협조해 주신 한국낙농육우협회 임직원과 낙농자조금 추진위원, 운영위원, 자문위원, 낙농관련조합·유업체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낙농자조금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낙농가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 ⊕

〈필자연락처 : 0652-276-1755〉